

## 차례

### 1 편. 조선문화어문법규범

간접인용 격조사 '-고/-라고' .....	3
두음법칙.....	3
-ㄹ데 관하여/대하여.....	5
사동/피동을 강조하는 접사 '기우, 히우, 리우, 이우' .....	6
사역과 사동.....	7
사이시옷표기.....	8
수사.....	9
시킴상(사동) .....	10
인용표(남), 옮김표(북)《 》 .....	10
연결어미 '-어'와 '여' .....	11
'폐'와 '페' .....	13

### 2 편. 조선말토

-기요 .....	14
-ㄴ 새려 .....	14
-나새나 .....	15
-ㄹ대신 .....	15

-라요 .....	16
-남나 .....	16
-남네까 .....	16
-남데다/-남데까.....	17
-남세다 .....	18
-소다/-수다.....	18
-습네/-습네다/-습네까.....	19
-습는다 .....	20
-쇠다 .....	21
-시라 .....	21
-야요 .....	22
-에로 .....	22
-(으)로 되다 .....	23
-(으)로 하여 .....	23
-웨다 .....	24
-자구요/-자요.....	24

---

## 1 편. 조선문화어문법규범

### 간접인용 격조사 '-고/-라고'

남한어에서는 간접 인용시 격조가 '-라고'를 사용하는데 북한 문법에서는 '-고', '-라고'가 함께 쓰이는 용례가 보인다.

- 북: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고 자문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 남: 과연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던가라고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처: 조의성의 조선어연구실, DLIFLC]

[차례로 돌아가기 ↑](#)

---

### 두음법칙 미적용

한국어는 어두에 'ㄹ'이 오지 않는 특징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ㄹ'을 그대로 적는다.

- 북: 룬평 | 년례적인 | 료양소 | 리용하다 | 리유
- 남: 논평 | 연례적인 | 요양소 | 이용하다 | 이유

어두에 있는 'ㄹ' 뿐만 아니라 어중에서 'ㅇ'으로 적히는 것도 북한에서는 'ㄹ'로 적히는 용례가 보인다.

- 북: 대렬 | 규률 | 분렬
- 남: 대열 | 규율 | 분열

어두에서 'ㄴ'이 'ㄴ', ㄸ, ㅍ, ㅌ, |와 결합된 경우 역시 남한처럼 'ㅇ'로 적지 않고 'ㄴ' 그대로 적는다.

- 북: 녀자
- 남: 여자

제 5 항.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서 본음이 <<녀, 뇨, 뉴, 니>>인 것은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 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적 방향으로 삼는다.

- 레: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참고—
녀자	여자	남녀
녕변	영변	안녕
뇨도	요도	수뇨관
뉴대	유대	
니탄	이탄	

제 6 항.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서 본음이 <<르>>로 시작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 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적 방향으로 삼는다.

- 레: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을—	—참고—
락원	낙원	오락
량심	양심	개량
력사	역사	리력
로동	노동	근로
료금	요금	재료

루각	누각	고루
류학	유학	보류
릉묘	능묘	구릉
리유	이유	도리
래일	내일	미래
례의	예의	사례
뢰성	뇌성	우뢰

어느 위치에서나 [ㄹ]음을 아니 내는 단어는 아니 내는 대로 적는다.

- 례: (갭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갭—	—을—
노예	노례
예속	례속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어철자법]

[차례로 돌아가기 ↑](#)

## -ㄹ데 관하여/대하여

'-ㄹ데'는 남한어에는 없는 어미이다. 의미적으로는 '-는데'와 비슷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이라는 당위적인 의미가 있다.

남한식 표현은 -ㄹ 것(에) 관하여/대하여(regarding doing something in the future)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41(1952)년 11 월 13 일 내각결정 제 203 호 《무상치료제도를 실시할데 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출처: 조의선의 조선어연구실, DLIFLC]

[차례로 돌아가기 ↑](#)

---

## 사동/피동을 강조하는 접사 '기우, 히우, 리우, 이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피동/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뒤에 '우'를 첨가한 형태로 피동 또는 사동의 의미를 강조한다.

- 북: 깎이우다 | 먹히우다 | 찢리우다 | 씻기우다
- 남: 깎이다 | 먹히다 | 찢리다 | 씻기다

'ㄷ', 'ㅅ', 'ㅈ', 'ㅊ', 'ㅁ'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기우'가 붙는다.

- 북: 뜯기우다 | 씻기우다 | 찢기우다 | 쫓기우다 | 감기우다
- 남: 뜯기다 | 씻기다 | 찢기다 | 쫓기다 | 감기다

'ㅂ', 'ㄷ', 'ㅈ', 'ㄱ'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히우'가 붙는다.

- 북: 뺨히우다 | 밟히우다 | 묻히우다 | 앉히우다 | 박히우다
- 남: 뺨히다 | 밟히다 | 묻히다 | 앉히다 | 박히다

'ㄹ', 'ㄹ'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리우'가 붙는다.

- 북: 말리우다 | 갈리우다 | 찢리우다
- 남: 말리다 | 갈리다 | 찢리다

'ㄱ', 'ㄱ', 'ㅍ', '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이우'가 붙는다.

- 북: 녹이우다 | 꺾이우다 | 덮이우다 | 짚이우다 | 핥이우다
- 남: 녹이다 | 꺾이다 | 덮이다 | 짚이다 | 핥이다

---

## 사역과 사동

사역형 (남한어에서) 피동, 사동의 접사가 붙지 않는 용언에도 북한 문화어에서는 -이-, -히-, -리-, -기-, -우- 등의 사동 및 피동 접사가 널리 사용된다. 예) 빛나다 => 남: 빛내이다(x), 빛나게 하다(o), 북: 빛내이다 (o)

-이-

- 북: 말이다 | 내놓이다 | 묵이다 | 뭉개이다 | 엮이다
- 남: 말게 하다 | 내놓아 지다 | 묵게 하다 | 뭉개어 지다 | 엮어 지다

-히-

- 북: 깊히다 | 생각히다 | 노엽히다 | 뭉히다 | 얇히다 | 잊히다
- 남: 깊게 하다 | 생각하게 하다 | 노엽게 하다 | 뭉게 하다 | 얇게 하다 | 잊어 지다

-리-

- 북: 분질리다
- 남: 분질어 지다

-기-

- 북: 헐벗기다
- 남: 헐벗어 지다

-우-

- 북: 바래우다 | 자래우다 | 베우다 | 시달리우다
- 남: 바래다 | 기르다 | 베게 하다 | 시달리게 하다

---

## 사이시옷 표기

단어가 합성될 때 나타나는 사이시옷은 북한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표기에서 'ㅅ'이 나타나지 않을 뿐, 발음은 남한과 똑같다.

- 북: 회불[회뿔] | 이사짐[이사짐] | 바다가[바다까] | 수자[수짜]
- 남: 햇불[회뿔] | 이삿짐[이사짐] | 바닷가[바다까] | 숫자[수짜]

'웃-', '옛-'은 'ㅅ'이 유지되어 '웃어른', '옛이야기'처럼 적는데, 이것은 '웃-', '옛-'을 단어가 아니라 접두사로 삼기 때문이다.

또 87년 개정 '규범집'에서는 '새별(새로운 별)', '비바람(비와 바람)'이란 단어가 [새별]과 [새뿔], [비바람]과 [비빠람] 두 가지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자를 '셋별(금성)', '빗바람(비가 오면서 부는 바람)'으로 적기로 했다. '셋별[새뿔]', '빗바람[비빠람]'만 예외적인 사이시옷 표기인 셈이다.

-----  
[참고] 사이시옷과 관련된 발음 설명입니다.

막힘소리 <ㄷ>가 끼워들어가는 경우

앞에 있는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형태부가 순한소리나 올림소리로 시작될 때에는 막힘소리 ㄷ가 끼워들어갈 수 있다.

- 해발 <해발> => 해뿔
- 해살 <해살> => 해쌀
- 나무단 <나무단> => 나무땀

- 바다고기 《바단고기》 => 바단꼬기
- 이몸 《인몸》 => 인몸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차례로 돌아가기 ↑](#)

---

## 수사

《고유한 우리 말 수사를 적극 살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고유한 말 수사와 한자말수사가 함께 쓰이는곳에서는 한자말수사를 버리고 고유한 말 수사를 살려써야 한다.》

- 열일곱살 - 십칠세
- 사흘 - 삼일
- 동, 서, 남 세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남: 삼면

《다음으로 수사로 써놓은것을 읽을 때에도 될수록 고유한 말 수사로 읽어야 한다.》

- 54 [쉰넷]
- 석탄 30 톤 [서른톤]

《경우에 따라 수사가 달리 발음되는 우리 말 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셋 - 석달, 세키로
- 다섯 - 다섯개, 다섯말

《대상에 따라 다른 단위명사와 옳게 결합시켜 써야 한다.》

- 비행기 - 석대, 녁대
- 배 - 세척, 네척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차례로 돌아가기 ↑](#)

---

## 시킴상(사동)

시킴상이란 주어로 된 대상이 보어로 된 대상에게 행동을 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는 시킴상을 나타내는 상토(접미사)'우'가 붙는다.

- 쉬우다 =>쉬다(남)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차례로 돌아가기 ↑](#)

---

## 인용표(남), 윽김표(북) 《 》

북한 글에서는 남한에서 사용하는 따옴표(" " 또는 ')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이중꺼쇠괄호(《 》)를 사용한다. 이 인용표( 북:윽김표)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 대화를 인용할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6 천명이면 어떤 사람인가?》할수 있는데, 이걸 순전히 간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 문장의 어느 부분을 강조할 때 이 우표의 상단 왼쪽에는 《2.16》, 오른쪽에는 《모란》, 하단 왼쪽에는 《조선우표》 오른쪽에는 《70 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 《이른바》라는 뜻을 가지고 인용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표시할 때 "중앙당 간부들, 항일투사 가족들, 《장》자가 들어간 사람들만이 사용할 것 같아요."

[출처: 조의성의 조선어연구실, DLIFLC]

-----  
윽김표는 인용, 강조 등을 나타낸다.

첫째로 이미 이루어진 문장, 그 부분 등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윗김표안에 넣어서 나타내야 한다.

- 그는 《난관앞에서 물러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언제 난관앞에서 주저않은 일이 있습니까?
- 우리에게 난관앞에 주저않을 권리가 언제 주어졌습니까?》하고 흥분하여 말했다.

둘째로 어떤 말을 특별히 강조하려고 할 때에는 윗김표를 리용한다.

- 《3 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셋째로 원뜻과는 위반되게 사용한 어떤 단어를 그대로 따다가 쓸 때에는 반드시 윗김표안에 넣어야 한다.

- 미제는《원조》를 미끼로 하여 신생독립국가인민들을 략탈착취하고 있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차례로 돌아가기 ↑](#)

---

## 연결어미 ‘-어’와 ‘-여’

### ‘여’ (연결 어미 ‘어’)

어간 끝모음이 받침 없이 ‘ㄷ, ㅌ, ㄴ, ㄹ, ㄷ, ㄴ’일 경우 뒤에 ‘어’가 오면 ‘여’를 붙인다. \*남한어는 변동없이 ‘어’를 붙임.

- 북: 되여 | 캐여 | 치여
- 남: 되어 | 캐어 | 치어

### ‘었’ (선어말 어미 ‘었’)

어간 끝모음이 받침 없이 ‘ㄷ, ㅌ, ㄴ, ㄹ, ㄷ, ㄴ’일 경우 뒤에 ‘었’이 오면 ‘었’을 붙인다. \*남한어는 변동없이 ‘었’을 붙임.

- 북: 시작되었다 | 진행되었다 | 벌리었다 | 밝히었다
- 남: 시작되었다 | 진행되었다 | 벌리었다 | 밝히었다

\*남한어, 북한어 모두 '하다' 동사/형용사의 어간 '하' 뒤에 '어/었'이 오면 '하여(해)/하였(했)'으로 쓴다.

- <예문> 남, 북: 열심히 공부하여라(공부해라) | 어제 운동을 많이 하였다(했다).

[출처: 조의성의 조선어연구실, DLIFLC]

---

## 《여》

이음토 어의 뜻으로 끝소리마디가 받침없이 《 | , ㅞ , ㅟ , ㅠ , ㅡ , ㅢ 》로 끝난데나 또는 《하》에 붙는다.

- 만경대의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하나의 조약돌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어리어있네.
- 유치원아이들이 아동궁전으로 뛰어간다.
- 포연이 가시여 며칠 안있어 도시와 농촌, 어촌에서는 전후복구건설의 성과들이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 《였》

시간토 《였》의 뜻으로 끝소리마디가 받침없이 《 | , ㅞ , ㅟ , ㅠ , ㅡ , ㅢ 》로 끝난데나 또는 《하》에 붙는다.

-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워한것은 만경대견학이었다.
- 어제는 비가 억수로 퍼붓더니 오늘은 날씨가 개였다.
- 조국의 산과 글, 강을 한눈에 굽어보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가슴은 한없이 들끓고 설레이었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폐'와 '페'

남한에서는 '페'로 표기되는 한자어 閉(닫을 폐: to close), 肺(허파 폐: lung), 廢(폐할 폐: to abolish) 등을 북한에서는 '페'로 적는다. 남한에서도 '페'의 실지 발음은 [페]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발음대로 적는다.

왜 '페'만 '페'로 적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른 한자어의 경우 '폐'와 '페' 발음되는 두 가지가 다 있는 데 반해 [페]로 발음되는 것은 "페"만 있고 "폐"가 아예 없어 혼동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같이 "페"로 적는 것으로 보인다.

- 북: 폐쇄 | 폐염
- 남: 페쇄 | 페렴

[출처: 조의성의 조선어연구실, DLIFLC]

---

## 제 7 장 한자말의 적기

### 제 26 항.

한자말에서 모음 <폐>가 들어있는 소리마디로는 <계>, <레>, <혜>, <예>만을 인정한다.

<레>계산, 계획, 레절, 레의, 실레, 세계, 혜택, 연예대, 은혜, 예술, 예지, 예약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규범집]

[차례로 돌아가기 ↑](#)

---

## 2 편. 조선말토

### -기요: 맺음토(종결토)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입말에서 정답게 무엇을 약속할 때 쓰인다. 토 《요》가 들어가있으나 거의나 《반말》 계열임을 나타낸다.

-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평양에서 만나기요.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ㄴ새려: 도움토

자음밑에 붙어서 결합모음《으》와 함께《은새려》로 쓰이며《더 예상되는 해당 사실은 더 말할것도 없거 그만 못한것까지도》의 뜻을 가진다.

- 눈은새려 비도 오지 않는다.
- 국은새려 물도 먹지 않는다.

-----

### -는새루

토《는새려》를 더 수수하게 표현하는 토.

- 면장만 된다면 돼지는새루 소도 잡겠는데...
- 말하기는새루 읽지도 못한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 -나새나: 맺음토(종결토)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동사, 형용사, 그리고 체언의 용언형에서 《기》형뒤에 붙는다. 《반말》말차림으로 해당 사실이 일어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을 나타낼 때 쓰인다.

- 캄캄한 밤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맵시나새나.
- 앞기나 새나
- 가뜰한 길잡이꾼들은 노다지 줄기나 새나, 그 허구한 나날 앓을 자리에서 뭉개고...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 -ㄹ 대신

용언의 '-ㄹ' 형 다음에 쓰이어 용언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게 또는 그와 반대로의 뜻.

- 울 대신에 웃다. (북) => 우는 대신 웃다. (남)
- 나무랄 대신에 칭찬하다. (북) => 나무라는 대신 칭찬하다. (남)
- 사죄할 대신에 (북) => 사죄하는 대신 (남)

[출처: DLIFLC]

## -라요: 맺음토(존경토)

맺음토 《라》에 《요》가 덧붙어 《높임》의 말차림으로 쓰인다. 친근한 정을 가지고 말할 때 쓰인다. 시킴의 뜻을 나타낸다.

- 풀어보라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문제는 아니예요.
- 오늘까지 그 책을 다 읽으라요. 래일부터 내가 읽겠어요.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느냐: 맺음토(종결토)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면서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 붙으며 《ㄹ》이외의 자음으로 끝난데서는 토 《습나》와 같은 값으로 쓰인다. 높임이 섞인 《반말》 정도의 말차림으로 수수하게 물어보는 옛스러운 투의 토이다.

- 임자는 어디 삽나?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네까: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면서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 붙으며 《ㄹ》이외의 자음으로 끝난데서는 토 《습네까》와 같은 값으로 쓰인다.

《존대》말차림으로 수수하게 묻는데 쓰인다.

- 그 분조에선 모내기를 언제 시작합네까?
- 어딜 그렇게 바빠 가십네까?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ㅆ데다: 맺음토(종결토)

갈게 대하는 말차림으로 쓰이는 맺음토.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뜻을 가진다.

- 묘향산의 비로봉에 올라서니 묘향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옵데다.
- 화학비료의 효능이 대단히 높습데다.

-----

## -ㅆ데까: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용언과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면서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난데 붙으며 《ㄹ》이외의 자음으로 끝난데서는 토 《습데까》와 같은 값으로 쓰인다.

- 그 분조에서는 지금 풀베기를 합데까?
- 농장원들은 지금 무얼 하고있습데까?
- 작업반원들은 지금 밭에서 무슨 일을 합데까?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ㅂ세다: 맺음토(종결토)

맺음토 《ㅂ시다》의 뜻으로 쓰인다.

-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맡은 과제를 꼭 끝냅세다.
- 해 봅세다. 나도 한몫 단단히 하겠소.
- 자, 시간이 다 돼가오. 최후돌격으로 불이 번쩍나게 일손을 다그칩세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소다: 맺음토(종결토)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용언에서 쓰이되 주로 《ㄱ, ㄷ, ㄹ, ㅂ, ㅅ, ㅈ, ㅊ, ㅌ, ㅍ, ㅎ, ㅍ, ㅍ, ㅍ》 등과 같은 자음으로 말줄기가 끝난데 붙는다. 《하오》말차림과《해라》말차림의 중간정도에서 수수하게 표현하는데 쓰인다.

- 우리 농장에서는 만풍년이 들었소다.
- 그 사람은 어제저녁에 고향으로 떠났소다.

### -수다: 맺음토(종결토) \*함경남도 방언

토 《소다》를 더 수수하게 표현할 때 쓰는 풀이토.

-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도 만풍년이 들었수다.
- 나도 다 들었수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습네: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알림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난 용언의 말줄기뒤에서 쓰이거나 또는 시간토 《았(엇, 었), 겠》이 들어간 용언이나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며 《존대》와 《하계》말차림을 뒤섞은것으로서 높여 말하기도 어줍잖고《하계》하기도 어려운 자리에서의 말차림을 나타낸다. 모음뒤에서 쓰이는 토《ㅂ네》와 짝을 이룬다.

- 그다지 걱정 안해주어도 좋습네.
- 어젠 비가 왔습네.

-----

### -습네다: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알림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난 용어의 말줄기뒤에서 쓰이거나 또는 시간토 《았(엇, 었), 겠》이 들어간 용언이나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며 토 《습네》보다 조금 더 존경하는 말차림의 뜻을 가진다. 모음뒤에서 쓰이는 토《ㅂ네다》와 짝을 이룬다.

- 그러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웃습네다.
- 그 사람은 어제 급히 떠났습네다.

---

### -습네까: 맺음토 (종결토)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조금 낮은 말씨로 물음을 나타낸다. 자음으로 끝난 용언의 말줄기뒤에서 쓰이거나 또는 시간토 《았(었, 였), 겠》이 들어간 용언이나 체언의 용언형에서 쓰이며 토《습나》보다 썩 더 존경하는 말차림의 뜻을 가진다. 모음뒤에서 쓰이는 토《느네까》와 짝을 이룬다.

- 학생들이 책을 읽습네까?
- 통일을 하자는데 뭐 그렇게 반대가 심합네까?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습닌다: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ㄹ》이외의 받침소리로 끝난 동사, 형용사의 말줄기나 시간토 《았(었, 였), 겠》이 붙은 어떤 용언형뒤에서 쓰이는 종결형서술식 《존대》계칭의 토. 토《-습니다》보다 존대하는 정도가 덜하며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는 색체가 동반된다.

- 집에 그러고 있는것보다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것이 좋습닌다.
- 그자는 몹시 표독한 사람이였습닌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어서오시라.
- 그대들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이었던 지성과 량심의 고백을 오늘은 력사앞에 마음껏 터치시라.

[출처: DLIFLC]

[차례로 돌아가기 ↑](#)

---

## -야요: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맺음을 나타내는 풀이토의 하나. 용언의 체언형에서와 《아니다》에서 쓰인다. 《높임》말차림으로 입말에서 어떤 사실을 공손히 알리거나 묻는 뜻을 가진다.

- 할아버지 전 꼭 할아버지가 바라시는 그런 큰사람이 될테야요.
- 올해에도 대풍이 들거야요.
- 명호동무는 그 일을 꼭 해내고야말거야요.
- 아니야요. 제가 가겠어요.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에로: 격을 나타내는 대상토

격토《에》가 위치를 나타낼 때 거기에 방향성을 주기 위하여 조격토《로》가 더 어우른것이다.

- 조국에로 진군
- 우리의 사색은 과거에로 거슬러올랐습니다.
- 새로운 시대에로의 본격적인 과도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사회주의에로의 계속혁명의 요구에 맞게 가장 철저하게 수행되었다.
- 《정상적인 정치궤도》에로 돌아가야 한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으)로 되다

남한식 표현은 '-(이)가 되다(become something as a result of)'이다.

- 우리 인민의 음식문화를 한 계단 더 발전시켜는 계기로 된 것으로 해서 이곳 인민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처: DLIFLC]

[차례로 돌아가기 ↑](#)

---

## -(으)로 하여 (남: '- 때문에')

-때문에. 술어 행동의 원인을 나타냄.

-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출처: DLIFLC]

[차례로 돌아가기 ↑](#)

---

## -웨다: 맺음토(종결토)

말체에서 토 《외다》를 어 수수하게 표현하는 맺음토.

- 난 강선에서 온 사람이웨다.
- 내가 철남이 할아버지웨다.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말토편람]

[차례로 돌아가기 ↑](#)

---

## -자구요/-자요: 추김을 나타내는 맺음토

추김이란 어떤 일정한 행동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수행할것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쓰는 말법이다.

- 이 토는 친근한 정을 가지고 높여 말할 때 쓴다.
- 남은 일을 빨리 끝내고 2 분조를 도와주자요.
- 좀 타자요. 같이 가자요.

[이 항목은 북한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출처: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차례로 돌아가기 ↑](#)

---